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7번>	<폴더 26번>	<폴더 14번>	<폴더 18번>
주 네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제 1독서 | 이사야서 55,10-11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지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릴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화답송 |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 2독서 | 로마서 8,18-23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3,1-23



<오늘의 복음: 마태오 13,1-9>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은총과 비움 - 마틴 솔레스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잘되는 걸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총을 우연과 혼동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은총이라 부르는 힘은 결코 연습이나 노력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은총은 연습과 노력이 빛을 보도록 해준다. 지식만 얻을 뿐, 깨달은 것은 연습하지 않

는 사람은 반쪽짜리 삶을 사는 것이다. 철학이든 종교든 지식으로만 그치면 종교적 혹은 지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

어려움 없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난파할 수 있다. 무력함 속에서도 하느님을 붙드는 걸 배우지 못한다면, 발을 헛디뎈 넘어질 것이다. 무력함과 권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건강해진다. 무력함은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탄식이다. 비우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일면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4-5)

- <울림: 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서>

교회의 전례력 (Liturgical Calendar) 중 연중시기와 제의 색깔

연중 시기(年中時期, Ordinary Time): 교회의 전례력(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업적을 1년 주기로 기념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회의 달력) 중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

연중시기는 교회의 전례력 가운데 가장 긴 시기입니다. 특별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활과 가르침을 묵상하며 **평범한 일상 안에서 신앙이 자라도록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과 희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교회는 미사 중에 다양한 상징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 중 하나는 사제가 입는 제의입니다. 제의의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지금 교회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연중 시기에 사제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녹색은 삶의 기쁨과 희망, 성장을 상징합니다.** 화려한 축제의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앙은 기쁨과 희망을 키워가며, 점점 자랍니다. 백색은 순결과 기쁨, 영광을, 홍색은 열정과 사랑, 순교를, 자색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계절마다 자연의 색이 바뀌듯, 전례의 색은 그 시기의 영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연중 시기 안에서, 일상의 평범함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작은 충실함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사도행전) - Sr. 안소근 실비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이미 책 전체의 예고편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1,8). 복음이 땅 끝에 이르면 사도행전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는 문밖으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다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첫 신자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2,42).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말로 알아들으면서 일치가 이루어졌듯이, 여기서도 일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4,32).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습니다.

일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온 햇수는 점점 쌓여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지도 이천 년이 더 지났는데, 전쟁의 소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에서 많은 전쟁들은 이러저러한 구실들을 내세운다 해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리석어서 아직도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계산이 밝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까지 감수하는 것일까요.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신자 공동체가 사

도들의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말은,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인간적 요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레오 14세 교황님의 사목 표어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해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5,28). 7장에서는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의 죽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박해와 순교는 복음을 꺾지 못합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에 있었던 사울이 장차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듯이,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8,1). 이후 교회의 역사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날 모습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으니, 1장 8절의 말씀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증인들이 퍼져 나갑니다. 8장 끝부분에는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예언서를 설명해 주며 그에게 세례를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저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5,39). 가말리엘이 최고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세상 안에서 일치가 가능함을 증언한다는 사실은, 교회와 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지 사항

* Holy Spirit, Amaroo 성당의 주임신부님이신 Troy Bobbin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성경 나눔 모임 안내

* 오늘 미사 후에는 교육관에서 성경나눔이 있습니다.

7월 21일(화) -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Zoom 온라인)

성경: 루카 10,25-37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7월 26일(주일) - 미사 후 교육관 (오프라인)

2. 세례식

10월 25일에 예비신자들의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하느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예비신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요한반 소공동체 반모임

일시: 7월 19일 (셋째 주), 주일미사 후

4. 7월 사목회의

일시: 7월 19일 (셋째 주), 주일미사 후 교육관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7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정유라 엘리사벳 (7.4) * 서미숙 루피나 (7.10)
- * 오선희 베로니카 (7.12) * 박순덕 베로니카 (7.12)
- * 박태오 태오 (7.19) * 박리암 리암 (7.19)
- * 이상명 다니엘 (7.21) * 정수민 비르짓다 (7.23)
- * 조은영 크리스티나 (7.24) * 장현준 크리스토퍼 (7.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인간생명 존중>

인간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여 모든 단계에 있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합니다.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봉헌금 & 교무금 | (7월 4일 ~ 7월 10일)

봉헌금	\$ 231			
교무금	\$ 710			
구민식	김천주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현주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7월 공동체 실천 |

가족에게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기

- 이번 달에는 가족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미소, 카톡 메시지, 꽃 한 송이 등의 자그마한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볼까요?